축산업자의 방위세 신고 및 납부

1. 축산업자의 방위세 납부의무 근거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칙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과세 소득의 범위 및 구분을 살펴보면 1. 종합소득 2. 피지소득 3. 양도소득 4. 열린소득에 비러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축산업자와 관련있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중 1. 축산업 임업 수입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체육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건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 보관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음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저비용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소득증 법 제6조에 의거: 소득의 성질 정부사정의 일환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금액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에 감면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축산업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예는,

1. 당해사업을 개시한 지가 1년은 그 다음 년도부터 2년간은 그 산출 세액의 100분의 100 2. 제1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은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파세표준 확정징고서와 함께 경부에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파세 표준 확정징고서는 이후 설명하고자 하는 방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추후 설명 할것임. 일전에 어떤 양쪽이 한분이 저에게 제한하고
도, 소매상이나 부두일러판매도, 소매상
도 축산업에 속하는지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신 것일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축산업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면 "法律상의 정
하는 축산업이라 할은 소 매 또는 양 사육 토
끼 친칠라 민간 가금 또는 고품의 사육 중식
제한 계획 축육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축
산업에 의하여 동물목 부취업자가 아닌 자가
부취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상기 설명으로서 축산업 역시 소득세의 납
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하나이며 인정한 기간
만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인이라는 것을 분명
히 하였으며 인정한 기간이라 함은 현재의 제
법에 의하여서는 1975년 12월 31일로서 100%
전액 감면 기간은 끝이 나서 이후 3년간은
50%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속하게 됨을 점검
한다. 한편에 전해지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전액감면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는 소
문은 정부의 세제 방침 정책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만큼 그 누구도 확신
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단계이며 관할된 소득세
법실정 축산업세법법률에 관하여는 추진 기
회 중에서도 설명한 것을 약속하며 본문에서
는 제목과 관련된 방위세에 관하여서만 언급
을 계속하고자 한다.

작년 6월 25일 정부는 자주국방의 기울을
분명히 하여가는 결의의 일환으로 방위세
법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 7월 이 세
법은 국회의 통과로 끝이 시행에 이르고 있다. 상기한 방위세법의 소개
는 작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이
해를 늦게 하여 필요한 몇 가지가 반복 제제
받은 불가피한 일이다. 축산업의 단위별 납
부의무는 방위세법 기본방향 제 3호 및 동법
제 2조 2항 및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조세감독자법 또는
정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지급명령의 규
정에 의하여 관세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방위
세의 납부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방위세의 과세표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종 지방
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에 준한다. 다시 말하
면 법 자체는 본법 15조 및 부칙 15조 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단일 세목으로서는 전체
국제정수목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정수법률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축산업이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세 납세
업종일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듯이 축산업의 방
위세 과세표준은 역시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
출하여 감면율을 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만 공
부하여야 할 방위세액의 산출이 가능하다.
축산업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크게 나누어,
1. 법인추환 또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과세
표준 산출방법
2. 복식기와 우무자의 과세표준 산출방법
3. 간이기장 및 일기장기장의무자의 과세
표준 산출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 법인추환 또는 대규모 기업축산의 과세
표준 산출방법은 이미서 설명을 약하기로
한다. 이하해하면 법인체나 대규모 기업축
산은 반드시 정구의회청석에 의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이며 기록 및 장부가 있는 한 과세
표준이 되는 이익금의 산출에는 문제가 없
것이다.
둘째 : 복식기와 우무자나 부과세법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적절년도의 수입금액(주로
판매 급액을 독립)의 합계액의 2억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세무시장으로부터 복식기
장의무자로 지정받은 자는 복식기와 우무식
전문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록할 의무를 갖으며 이런 복식
기장장부를 비치 기록할 자는 역시 과세표준
의 산출은 장부에 의하여 쉽게 산출될 것이다.
셋째 : 간기장 및 일기장의무자가 주로
여기에 '다무고자하는 문제의 초점이 우리
나라 축산의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간기장의무자와 장은 적절년도의 판
매액이 6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그 외
의 모든 자는 일기장의무자로 둘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건강장부는 현금 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및 경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는 것과 같다. 일기장이라 함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 현금 매출과 외상매출에 관한 사항
·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세무당국이 이를 조사 인정될 때에는 일정액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다. 실체적으로 건기장의무자가 얻기로 하여야 할 세무조사의 관례에 삼을 낡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장부도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도 없는 자료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확보를 위해 국세청당국이 고안해 놓은 것이 소득표준율이라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당해 당해당부의무자의 판매금액 조작이 되더라도 이 금액이 인정용의 소득표준율을 끌어내려면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혼란을 인정과제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전년도 현제의 국세청에서 적용한 축산업자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소개하면,

양계업 12% 양우업 15%
양봉업 17% 양봉업 18%
양양업 14%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득표준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국세청 당국이 매년 당해년도의 업종별 경기정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물다 설명을 하자면,

저기라는 양축의 장부판매액이 10,000원이라 했을 때 소득표준율 12%를 끌어내려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18%라면 세액은 151,200원의 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판매금액의 신고 및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예상되는 몇 가지 세무당국의 판매액 조사 내지는 결정 방법을 소개하면:

1. 사료 구입자료에 의한 추정
2. 시설 규모에 의한 추정
3. 감면 신청서에 의한 결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료 구입자료에 의한 추정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사료단가의 구입차가 농업자재단가로 사료를 구입하면 반드시 서면의 영업자재변자서를 요구할 것이며 표준세액서를 결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것을 발부하여 줄 것이고, 사료자재는 4개의 표준세액서를 작성하여 한 명의 거래가 있는 다음달 말까지 세무서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세무자료는 서면의 형식에 의한 장부로서 전달되어 서면자료로 제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세무자료는 농업자재를 구입함으로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된 수입자료의 금액 또는 일정액의 가감액이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을 줄 수 있다. 즉산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축업자의 경우 사료구입자료를 전액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면 당연히 불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해진 용추리간에서 있는 봉아리의 사료구입자료는 식별 동산중에 있는 산란사료의 부분과는 달리 양축가의 적정골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국세청장이 축산회사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해석사료구입 영수증 전체 금액 산란비중 가감 비중을 차지하는 허당기분이지만 이 외에 여러 가지의 과정 및 일정액의 이익이 가산되어 판매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이 점에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시설 규모에 의한 추정을 생각할 수 있었다. 즉 축산별의 큰 특정 중의 하나는 축산업자중 많은 사람들이 일정비에 가축지리수나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호주 국민의 세무당국은 거의 모든 영종에 대하여 판매액을 결정구체로 인한 유사규모 및 제재체를 표준으로 조사하여 얻어진 자료를 동등성을 가능한 모든 압소에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감면신청서에 의한 결정을 생각할 수 있다. 금년 2월말 여름은 꽤 많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 신청서에는 법적 소득금액 내지는 감면 받고자 하는 소득세액이 기록될 것이다.
이 감면신청서는 여러분 자신이자와의 계산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인 만큼 감면신청서상의 감면받고자 하는 소득세액이 방위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액을 납부하므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감면신청서의 작성시 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앞서 설명된 것에, 둘째의 경우를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는 범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았다. 세무공무원의 생각에 더해졌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단 세무조사를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예는 생략함)
※ 앞으로 의전의 방법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판매에 관한 계약 기록이라도 보면 여기로 기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3. 방위세 세율, 세액계산 신고및 납부

○ 축산업자의 방위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방위세율과 같이 뉘각 과세표준액이 840만 이하일 경우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10%, 논간 과세표준액이 84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출된 소득세액의 20%로 되어 있다.
○ 세액 계산은: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산간지 6000수술 가축의 논간 계란생산 수율이 1,320,000개로 보고 논중 평균 난가를 20원으로 계산하여 보자. 총 판매금액은 26,400,000원이 될 것이다.
세액을 계산하면,
26,400,000×12% (소득세율) = 3,168,000원 (소득세 과세표준)
3,168,000×40% = 1,264,000
= 4,432,000원 (소득세액)
방위세는 746,400×10% = 74,640원이 된다.

참고로 소득세율을 소개하면:

신고기준 과세표준액 세율
1, 100만원 8% 4,800원
48만원 10% 4,800원
72만원 12% 9,600원

72만원 15% 36,000
96만원 120만원 18% 64,800
120만원 150만원 21% 100,800
150만원 180만원 25% 160,800
180만원 240만원 30% 250,800
240만원 300만원 35% 370,800
300만원 480만원 60% 520,800
480만원 1,200만원 50% 1,200,800
1,200만원 2,400만원 55% 1,720,800
2,400만원 3,600만원 60% 2,920,800
3,600만원 4,800만원 65% 4,720,800
4,800만원 이상 70% 7,120,800

○ 신고 및 납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방위세의 적용시기는 방위세 자체가 7월에 공포 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소득자 역시 방위세 과세표준에 되는 소득금액 및 소득세액의 산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계임을 과세액에 의하여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산출된 세액을 앞에서 말한, 과세표준 확인 신고서
○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방세액 등을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첨부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측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한다. 1976년 2월 29일까지 197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 즉 증가소득액에 제출하셔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신고의무는 다한다.

많은 축산인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방세세액계산 등
의 문제가 있었으나 지면 제한상 여기에서 설명을 앞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원인은 모든 소득의 합계액에 의한 소득세액산출이 방세의 과세금액이 되는 것에 분명히 근로소득이 있는 부분에 의하여 1975년 8월 1일 이후의 근로소득 부분만 방세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린다. 앞으로 여러분의 방세에 자신감해 보거나 암호에 있어서 더욱 더 알게 된 세부사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 담당자분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과 신뢰의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